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한 해의 기트머리에서 속절없이 지는 태양을 전송하자. 겨울은 태양조차 차갑다. 필필 끊던 여름의 아반적인 태양이 식은 지 오래다. 지나간 날은 끔찍했다. 레몽 그노는 '악마들이 달군 게 태양'이라고 그랬지. 광기와 대의명분으로 태양이 극렬하던 시대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말뚝 뱀새가 나는 가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눈(雪)과 얼음, 소금과 후추, 양초 여섯 개를 위해 마련한 겨울 스웨터를 장롱에서 꺼내 입었다. 스웨터를 입으면 저녁의 스산함은 운명의 순간으로 빛난다. 겨울 황혼은 잘 구운 빵 같다. 그걸 보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해도 좋을까? 아팠던 동생이 빵을 달라고 때를 쓰지 않는 건 사실이다. 동생은 환절기마다 오는 우울증을 제 방식으로 잘 견디는 중이다.

가을이 끝날 무렵 우리에게 낙담이 찾아왔었는데, 그 건 뉴질랜드 산 마누가 쫓아 떨어진 탓이다. 그 대신 눈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산수유 빨간 열매들이 있음을 깨닫고 위안을 얻었다. 시들과 바스라지는 것들의 소리

배춧국과 동지 팔죽

가 시끄러울 때, 사소한 것에 상심한 기분은 함부로 방치된다. 한 해가 끝나는 것은 세익스피어 4백 주기, 쓸모를 잃은 열쇠, 녹색 채소들, 일요일 저녁들, 빛나던 소녀의 미소가 주던 기쁨과 위안 없이 견딜 날들이 더 길어진다라는 뜻이다.

나는 겨울마다 눈 내리는 오솔로에 가고 싶었지. 오두막집에서 눈 내리는 숲을 오래 바라보고 싶었지. 가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문비나무 어린 가지들이 푹, 푹 꺾이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 나는 평생 오솔로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오늘은 서리 맞은 저 들판의 한해살이풀들이 남아빠진 무릎을 쥐고 주저앉은 풍경이나 바라볼 뿐이다.

겨울에는 구절초, 썩은비름, 도라지, 다알리아의 전성시대도 끝났다. 당신도 더 이상 젊지 않다. 새해엔 당신의 얼굴에 주름이 늘고, 골밀도도 상겨질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피의 고도(高度)가 낮아지고, 고아원의 북도에는 한기가 들어갈 것이다. 해마다 외양간에 매인 손은 몸집이 자라지만, 어머니들은 조금씩 쇠약해진다. 어머니는 늙으신 뒤 부쩍 잠드대가 심하다. 사람이 늙으면 왜 어린 시절 꿈을 더 자주 꾸는 걸까?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장자리에 가랑잎이 쌓여 있다. 저 녹색의 시체들! 바람이 저들을 한데 모았을 데다. 파주 북쪽 하늘에는 쇠기러기들이 빙이(V) 자로 대오를 이룬 채 난다. 두어 마리가 그 대오에서 이탈한 채 뒤를 따른다. 아마도 날개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새끼 쇠기러기일 것

이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생각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다. 낮엔 크루아상 하나를 아껴 가며 먹고 해바라기의 회색 씨앗을 까먹으며, 그 많던 삼촌과 이모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한다. 오후 다섯 시 무렵 이마가 차가워진다. 문득 겨울 낮은 짧고 지루할 정도로 길었다. 일조량이 준만큼 행복도 준다. 점심에는 어머니가 끓여 주신 배춧국을 먹는다. 배춧국은 슬픔을 달래 주는 내 소울푸드다. 어머니는 어찌자고 그 맛있는 배춧국을 끓이셨을까? 나는 뜨거운 배춧국에 입을 대일까 후후 불면서 먹었지. 웅덩집 곳마다 추위가 가난한 집 자식들처럼 한데 모여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 차갑고 청명한 겨울 저녁들이 더 자주 왔다가 간다.

동지에는 팔죽을 먹는다. 동지 팔죽은 귀신을 내쫓고 집안에 닥칠 흉사를 막는다. 그러나 아코디언을 팔아서라도 동지 팔죽은 꼭 먹어야 한다. 어머니가 다시 젊어진다며, 내가 어머니의 어린 아들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머니에게 떼를 써서라도 털모자를 하나 얻어 쓰겠다. 그러면 폭설이 쏟아져도 머리가 젖지 않을 텐데. 사는 동안 너를 미워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더 착한 아들이 될 수도 있었지.

아, 어머니가 끓인 배춧국과 동지 팔죽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훌륭해졌지. 하지만 그럴 순 없었지?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겠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늙어 버렸으니까.

종교칼럼

같은 하루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걸어서 5분 거리인 성요한병원에 아침 미사를 드리러 간다. 바람이 제법 매섭다. 입동 추교좌성당 앞, 거대 괴물 같은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우뚝 서 있는데 마무리 공사 중인 지 일꾼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총걸음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들어간다. 미사를 마치고 요한병원을 나설 때면 태양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버스를 기다린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점점 늘어나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입동 추교좌성당 현대유치원 앞은 아이들을 등원시키려는 부모들의 차량으로 붐빈다.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는구나!'라고 속삭이며 속속로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하루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느냐에 따라 다른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같은 하루지만 어느 누구에게가는 다른 하루라는 것이다.

다른 하루라는 말 안에 기득권의 횡포가 있고, 우월 의식을 갖는 이들의 차별과 냉대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같을 수 없는 하루를 말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생각하는 하루는 같지 않다.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복지사와 복지 대상자들의 하루도 같지 않을 것이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규정에 등록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하루도 같지 않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시작하는 하루와 가족과 사회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난 독거노인, 노숙인, 고아, 장애인, 이주민, 난민의 하루도 다를 것이다. 안락한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보일러조차 틀지 못하고 굶으면서 시작하는 하루도 같지 않다.

우리의 존재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중한 존재성을 지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 직업, 처한 환경에 의해 변질될 수 없다. 그런데 천박한 자본주의와 불명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가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하루를 주제로 말하고 싶은 이유는 모두가 맞이하는 하루이기 때문이고, 그 하루를 맞이하는 모두가 기쁘게 살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논리와 끝없는 욕심은 같아야 할 하루를 다른 하루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세상이 점점 탐욕으로 어둠으로 치달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예수는 마태오복음 5장 45절에서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

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숨 가쁜 거래를 하는 것 같다. 분명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끊임없이 원한다.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고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우리 존재가 받아야 할 천부인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성실하거나 불성실한 것에 상관없이, 또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이다.

최근 시리아 난민 친구를 만났다. 그의 가족은 기본적인 인권이 짓밟힌 것은 물론,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생활도 할 수 없었다. 피신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뒀던 차량에 포탄이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둘째 형이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 한참 뒤늦고 공부할 나이 어린 이 친구는 현재 가족을 위해 공장에 다니고 있다. 어떤 이념과 사상,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너무나도 쉽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짓밟으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같은 하루를 살 수 있었는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갈 수는 없는 것일까?

기고

코로나 시대, 시인 운동주의 마음을 이어받자



양홍
시인·현대문예 작가회 회장

희망과 절망은 반대말이다. 이 두 가지는 한 사건을 다르게 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희망은 열린 마음을 가져다 준다. 절망은 닫힌 마음으로 이어진다. 희망을 지고 사는 사람은 너그러워지지만 절망 속에 묻히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희망을 지고 사는 사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를 창조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지만 절망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파괴적으로 대처한다. 희망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생명으로 향하게 하지만 절망은 죽음으로 향하게 한다. 희망은 우리들의 삶의 지평을 가능성으로 열려있게 하지만 절망은 가능성이 배재된 좌절과 체념으로 단아 버린다. 몰트만은 "희망의 정신과 희망의 힘이 없는 인류는 스스로 선택된 죽음 속에서 파멸할 것"이라 했다

일 년을 다 보내는 시기를 연말이라고도 하고 망년(忘年)이라고도 한다. 연말을 망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의 일을 다 잊어버리자는 뜻이나 코로나19 시기

를 지내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를 기원해 본다.

어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던가, 어제 있던 것이 오늘도 있다. 문제는 어제의 것을 오늘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다. 어제의 우리가 내일을 보며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내일의 새해는 새 땅의 희망을 오늘에 실현하는 일, 이것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어제의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일이다. 소유만 하려면 어제의 내가 아닌, 나눔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가치관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 이후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여겼다. 인간이 가진 두뇌를 사용하여 과학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고 생명 복제와 유전 공학을 발전시켜 슈퍼 마우스(super mouse)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공해에 따른 기상이면, 숨쉬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들이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전쟁,

종교전쟁,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생존경쟁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보다는 절망 내지는 죽음이 더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힘의 문화, 죽음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세상을 지배해 온 힘의 문화는 소유에 그치기를 두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소유를 고수하는 한 온 세계는 함께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는 '나눔'이 되어야 한다. 재화·양식·학식·기술·사랑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새해로 맞이하자. 가난하여 궁궁대는 우리 이웃들, 실직하여 파괴되는 가정들,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새해로 삼자, 절망과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았으면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사랑이나 소유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감히 소유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운동주 시인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했으면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소유의 자유가 아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자유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만이 우리의 의무요 권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社說

‘백신 접종’ 믿을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득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 출입 장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시설 이용이 자유로운 반면, 미접종자는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광주일보가 만난 직장인 A(31)씨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때운다고 했다. 그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데다 아버지가 백신 1차 접종 후 고열 증세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는 등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강화된 뒤에는 회사에서 외출이 더 쉬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임신부 B씨도 "인터넷을 보니 미접종자는 무조건 출입을 금하는 식당들도 많은데다 식당 입구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은 곳을 보면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임신부와 기저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백신 접종 이후 몸에 이상반응이 생긴 이들과 같은 이유도 다양한데, 정부가 기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데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조건 접종을 강요할 게 아니라 백신 기피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신 접종의 신뢰부터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극빈층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는 그제 전북대에서 가진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극빈층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언을 넘어 망언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같은 당 소속 홍준표 의원조차 '나도 모르겠다, 이제'라고 할 정도였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의미가 잘못 전

달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윤 후보의 실언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공식적인 정치무대인 대선 경선에 나온 순간부터 실언을 쏟아내 그 리스트가 있을 정도다. 대표적인 것이 '주 120시간 노동'과 '전두환 옹호 발언'이다. 특히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호남인들이 많다"는 발언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무성의한 태도에 있다. 전두환 옹호 망언 뒤에는 인스타그램에 먹는 '사과' 사진을 올려 '유대를 존중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러나 윤 후보의 극빈층 비하 발언에 대한 해명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언제까지 실언을 쏟아내고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반복할 것인지 참한

無等鼓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있다. 바로 재래시장이다. 구의원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출마자들이면 누구나 선거운동 장소로 택하는 곳이 시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서울은 물론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을 찾아 유세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역대 집권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들도 경제 위기 시 시장을 찾아 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시장을 찾아 민심을 파악하는 행위는 조선 후기 '공시인 순막' 제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조정엔 필요한

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행사는 조선 말까지 이어져 오다가 갑오개혁 이후 폐지됐다. 이후 공시인 순막이 다시 등장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였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공시인 순막은 절대자인 왕이 불쌍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민심을 달래는 행위로, 왕조시대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즉 양방항 소통을 하는 형태 '국민과의 대화'와는 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을 찾은 행위를 서민 코스트

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시장 상인들이 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민 물품을 조달하던 공인과 시전 상인을 합해 부르던 용어가 공시인(貢市人)이다. 순막은 '고질적인 폐단에 대해 묻는다'는 뜻이다. 즉 왕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제도로, 요즘 말로는 '국민과의 대화'인 셈이다.

영조가 왕이었던 18세기는 한양 도성민의 절반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중요한 왕의 업무였다. 민초가 왕보다 비치길 바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같이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지만, 그럼수록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